

■ 2023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사립미술관)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2월 2일(금요일) 13:00~18:00
2차) 2022년 12월 13일(화요일) 09:3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일권, 박우찬, 박지수, 최은혜, 홍현숙

□ 1차 심의 총평

미술관은 '사립' 이든 '국공립' 이든 설립의 주체와 상관없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전시를 통해 우리 시대에 중요한 예술가를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거나 소장하고, 관객들이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접하고 이해할 기회와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술관의 일련의 활동과 역할은 공적 성격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술관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전시장이 아니라 예술가와 비평가, 큐레이터, 관객 등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써 동시대 시각예술 환경에서 중요한 공적 책무를 지녔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술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관객이 급감했고, 비대면 상황에서 인력 구성과 원활한 운영이 여의치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사립미술관의 맡고 있는 공적 역할과 사립미술관이 처한 현실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심의에 임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심의는 동시대 시각예술 환경에서 민간이 경영하는 공적 성격의 공간으로 '미술관의 정체성', 그리고 해당 미술관과 연결된 관객과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기획전시와 연계프로그램의 '참신한 기획성' 을 중요한 평가 조건으로 삼았다. 여기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시설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환경 등도 함께 눈여겨보았다. 또한 지방소멸 시대에 문화예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의 사립미술관에 대한 안배 또한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성별, 계급, 연령의 제한이나 제약 없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미술관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며,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을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 모두 고심하였다.

심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들은 제1차 지원심의 이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지원 사업에 응모한 19건의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다. 대면으로 진행한 1차 지원심의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바 있는 심의 기준 - 지원적합성 및 운영역량(40%), 사업계획 충실성 및 기대성과(40%), 공간운영의 안정성 및 개방성(20%) - 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각자 서류를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개괄하자면, 심의위원들은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그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전시와 연계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과 예산안은 타당한지, 그 계획에 맞는 자체기획 인력과 역량이 충분한

지, 예술가와 비평가 그리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에게 예술 감상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 또한 다년 지원의 경우, 다년 사업의 연도 간의 유기성 및 연속성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심의위원의 전수 심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심사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몇몇 지원사업은 1차 지원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다시 논의했다. 23년도 신청 공간 중에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공간은 현장 평가 결과를 25% 심의에 반영했다.

심의가 거듭될수록 논의는 '민간전시공간' 과 변별되는 사립미술관만의 역할과 고유성으로 집중되었다. 지원 대상은 사립미술관으로 인증 평가받은 곳이었기에, 무엇보다 미술관이라는 정체성과 공공성,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반면, 사업계획에서 개인전의 빈도가 높고 그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단체전의 공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타당한 명분 없이 지나치게 소장품에만 의존한 경우 등은 심의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전시나 연계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화두가 참신하고 실험적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관객과 소통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지원 서류 내에서 사업 계획이 다소 불분명할지라도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설립 목적에 높이 부합하는 경우 2차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 2차 심의 총평

사립미술관은 한국 미술 문화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봉사하는 기관임에도 운영자금을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국공립미술관에서 비해 운영자가 자비로 공간을 운영하는 관계로 미술관 운영이 매우 어렵다. 사립미술관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립미술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임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심의는 사립미술관의 정체성과 그와 연계한 전시와 프로그램, 그리고 관객의 문화 향수 기회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 안배가 되도록 고려하였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심의는 지원 적합성 및 운영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공간 운영의 안정성 및 개방성을 기준으로 삼고 1차 서류 심의를 통과한 14개 미술관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미술관 관계자의 설명(5분)에 이어 심의위원들의 질의 응답(10분)으로 진행되었다. 사립미술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직의 역량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갖추어진 곳이라 질의응답은 자연스럽게 미술관 사업과 예산, 문화 향유의 조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심의는 미술관의 운영 방향과 사업의 적합성, 전시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 작가 선정의 적절성, 전시사업의 구체성과 홍보 계획의 실효성, 총예산 중 지원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적절한 예산의 구성, 개방적인 참여 기회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기관을 정했다. 사업계획에서 기획전의 비중이 작거나 사업의 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주제나 담론 창출을 위한 고민 없이 단순한 전시개최 횟수에만 의존한 경우 등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개인전이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보다는 기획전시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간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공간의 안전성은 보험가입여부를 중심으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관리 대처 방안을 확인하였다. 지역 균형을 고려한 배분은 최대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기관과의 격차로 인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미술관들은 대부분 안정된 운영 역량을 갖추고 우수한 사업을 수행해온 곳으로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사립미술관의 경우 미술관 별 운영 역량과 조직, 예산 및 사업 진행의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크다. 그러한 이유로 몇몇 사립미술관들이 매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사립미술관의 공간지원이 여러 기관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지원 운영방식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 일동